

## 國內 위성 發射場이 胎動하는 21세기 入門에서...



通字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辛巳年은 21세기가 出帆하는 첫 새해 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새 밀레니엄의 國產 새 衛星들도 정부가 最適地로 발표한 한반도 子午線上의 最南端 고흥 우주발사센터에서 發進할 것으로 期待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부가 새 시대 국가 競爭力을 좌우할 우주, 위성 기술개발을 促進 할 외나로島 宇宙 前進 基地가 9세기 일찍이 淸해진 大使 장보고가 막강한 해상권을 장악했던 海上 前進 基地 莞島와 이웃하는 濫故之新 宮습을 보여 韓半島의 미래화, 글로벌화 推進은 順坦 하리라 믿습니다.

물론 GEO 軌道 위성 발사에는 당장은 未洽하지만 向後 2015년까지 약 15개이상 國內 專用 위성을 확보하여야 할 長期 계획에서 볼 때 小型 低軌道 위성 부터 施行 錯誤를 줄이면서 국제 用役 서비스에 信賴度를 提高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會員 여러분!

然이나 최첨단 기술력이 結集 되어야 할 大役事를 추진하는 데는 必히 産·學·研의 專門人力이 相互 협력하는 것이 必需的이어서 특별히 通信衛星·宇宙産業研究會 회원 여러분의 覺悟와 熱情이 요청되는 時点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本會의 금년 중점 사업은 韓·日·中 국제합동 전문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국제 위성 先進 기술의 정보 交流와 사업 컨소시엄을 摸索하며 국내로는 정통부와 건교부가 상호협력하는 ITS 세미나 및 전시회, 우주 위성기술 전시회 등을 專門 分科위원회별로 개최하여 명실공히 산·학·연 결집의 中樞가 되도록 추진합니다.

한편 정부기관의 施策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당 部署의 定期的으로 懇談會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季刊誌로 발간하고 있는 本會誌는 회원 확대와 전문 분야 후진 養成에 도움이 되는 알찬 編輯을 위하여 通信, 宇宙, 氣象, 軍事, 測地 및 위성 飛行體 製作, 發射기술 이외에도 우주 항공 로켓 분야를 망라한 總合 專門誌로 變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욕적인 계획도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므로 우선 관련업체의 특별 會費督勵와 각종 연구과제 수행 및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더구나 금년은 本會 事務局 사무실의 定着을 위하여 특별한 추가 예산이 반드시 마련되어야만 하는 어려운 입장에서 여러분의 心機一轉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금세기 위성 우주 기술은 국제 경쟁력이 되는 각 국가 기간 산업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으로 자랑스런 우리 전문인은 사명감을 갖고 연구개발과 더불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후진 인력을 배양할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방안도 관계 산업체와 적극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할 줄 압니다. 특히 금년 日本에서 共同 개최하는 韓·中·日 국제 위성 컨퍼런스는 時宜 적절한 이벤트이므로 사전 발표자 選定과 충실한 論文 등 각 분야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國威宣揚할 수 있도록 해당 위원들의 각별한 傾注가 절실히 요구되기도 합니다.

끝으로 지난해에도 헌신적으로 奉事하여 주신 각 회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萬福하시길 새해를 맞이하여 祈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 새해

회 장 김 광 영 드림